

●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, 이 산더러 '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'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.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. (마태복음 17장 20절)

겨자씨만한 믿음의 중요성과 그 위대성

긍정적인 태도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. 그 어느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.

믿음을 가져자.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이든, 인간에 대한 믿음이든, 자신에 대한 믿음이든 믿음은 자신을 지키는 '인생의 느티나무'가 되어 줄 것이다.

정주영은 맨주먹으로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.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도 아니고, 권력도 아니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. 그는 강철같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. 믿음은 '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확신'이다.